

81장. 주는 귀한 보배

- (1)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 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 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양 그 품안에 괴롭없어 더 바랄 것 없네
- (2)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 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 (3)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속에 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 (2)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 (4)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 할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수 없도다

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렴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6월 12일 (수) 기도 담당 : 최종명 집사

2019년 6월 11일 (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81장 다 같 이
기 도 조병훈 집사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4:3-4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여호와께 속하는 삶의 방법』 김명자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540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3-4>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1일 (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임을 한 시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반역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그 반역에서 돌아설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고, 마음 밭에 자라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 가죽을 베어, 그리할 때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새문안에 속한 모든 권속이 영육간 평안을 공급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개, 보수해야 할 많은 사안들, 헌당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제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전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들 자신들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가중할 뿐인 현실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열강들의 이권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책임적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